

弓裔와 梁吉의 전쟁, 비뇌성 전투에 관한 고찰

정 성 권*

1. 서 론
2. 궁예세력의 형성 과정과 비뇌성의 위치
3. 죽주 비뇌성 전투와 戰場
4. 토착 세력의 동향
5. 궁예 관련 유적
6. 결 론

1. 서 론

궁예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 중 가장 극적인 삶을 보여주는 자이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처했던 궁예는 유모의 손에 구해져 세상과 등진 채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다. 이후 통일신라 말 호족의 각축장에 뛰어들어 궁예는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마침내 스스로 신의 위치까지 오르게 된다. 궁예의 최후는 잘 알려져 있듯이 자신의 심복이었던 왕건의 쿠데타에 의해 죽음으로 마무리 짓게 된다. 이렇듯 궁예의 삶은 그 자체가

* 단국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강사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 중에는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민족사의 방향을 전환하는 중대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한다. 그 중 하나로 뽑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非惱城 전투이다.

비뇌성 전투는 궁예와 양길이가 한강 유역과 중부지역의 패권을 놓고 자웅을 겨룬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승패에 따라 궁예와 양길, 개인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이후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국가의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는 매우 중대한 전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동안 비뇌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가평군 하면 현리,¹⁾ 경기도 광주와 안성사이의 구간,²⁾ 철원군 김화읍,³⁾ 양평군 양평읍,⁴⁾ 안성 죽주산성⁵⁾ 등이 논의되었다. 이 중 근래의 연구성과인 죽주산성이 비뇌성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장에서는 궁예세력의 형성 과정과 더불어 비뇌성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비뇌성 전투의 과정은 비뇌성을 중심으로 한 공성전이 아니라 궁예 군대가 양길군을 전격적으로 기습한 기습공격임을 알 수 있다.⁶⁾ 3장에서는 비뇌성으로 추정되고 있는 죽주산성의 입지를 분석하여 비뇌성 전투가 벌어진 戰場의 위치를 추정해 보았다. 4장에서는 비뇌성 전투가 벌어졌던 죽주 일대의 토착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뇌성 전투는 양길이가 자신의 전 병력을 소집하여 궁예를 공격한 총력전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병력은 양길이가 궁예를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예가 비뇌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죽주 일대의 지리를 매우 잘 알고 있는 궁예의 전술과 더불어 토착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장에서는 비뇌성 전투가 벌어진 지역에 세워진 궁예관련 유적에 대해

1) 복원문화역사연구소, 『건등산 뿌리의 후삼국지』, 2005, p.195.

2) 安永根, 「나말려초 청주 세력의 동향」, 『수춘 박영석박사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상, 탐구당, 1992, pp.400~401.

3) 한국국정신문화연구원, 『譯註 三國史記』, 1997, p.382.

4) 李在範, 『後三國時代 弓裔政權 研究』, 혜안, 2007, p.71.

5) 이도학, 「궁예의 복원경 점령과 그 의의」, 『東國史學』 34, 동국사학회, 2007.

6) 『三國史記』 권 50 열전 10 궁예

살펴보았다. 궁예관련 유적은 “궁예미륵”으로 전칭되는 석불입상들이다.

2. 궁예세력의 형성 과정과 비뇌성의 위치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나말’의 시기는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어 가는 880년대 이후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전국이 내란상태에 놓이게 되며 진성여왕대에 이르러 호족이 전국 각지에서 대두하여 ‘호족의 시대’를 열었다.⁷⁾ 특히 농민 반란의 기폭제가 된 진성여왕 즉위 3년인 889년에 일어난 중앙정부의 조세독촉과 이에 대항한 농민의 貢賦不納사건 이후부터 사실상 신라는 몰락해갔다.⁸⁾

『삼국사기』에 의하면 궁예는 10여 세에 출가하여 세달사로 가서 승려가 되어 선종이라고 自號하였다.⁹⁾ 궁예는 세달사에서 대망의 꿈을 품고 세달사와 인근지역에서 세력을 모은 후 진성여왕 5년인 891년에 竹州賊魁 箕萱에게 투탁한다.¹⁰⁾ 기훤은 토착 배경을 떠난 무리를 결속하여 한편으로는 약탈과 노략질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집단에 동조할 무리를 규합함으로써 세력을 강화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¹¹⁾ 궁예는 이러한 기훤에게 의탁하였으나 기훤은 궁예를 잘 대접하지 않았다. 이에 궁예는 892년 기훤을 떠나 북원의 양길에 의탁한 후 양길로부터 기병 100여 기를 받고 북원의 동쪽 부락과 명주 관내인 주천, 내성, 울오, 어진 등 10여 군·현을 습격하기도 하였다.¹²⁾

894년 10월 궁예는 6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명주에 들어갔는데 이때에

7) 鄭淸柱, 「호족세력의 대두 배경」, 『한국사』 11, 국사편찬위원회, 1996, p.69.

8) 신호철, 『후삼국사』, 개신(충북대학교 출판부), 2008, p.25.

9) 『三國史記』 권 50 열전 10 궁예.

10) 『三國史記』 권 50 열전 10 궁예.

11) 金成煥, 「竹州의 豪族과 奉業寺」, 『文化史學』 11·12·13호, 韓國文化史學會, 1999, p.514.

12) 『三國史記』 권 50 열전 10 궁예.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였다.¹³⁾ 궁예는 895년 3,500명을 이끌고 명주를 떠나 895년 8월에 철원 일대를 장악하고 896년에는 철원에 도읍을 연다. 898년 7월에는 溟西道와 한산주 관내의 30여 성을 취하고 송악군에 도읍한다.¹⁴⁾

이후 궁예의 세력은 더욱 커졌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양길은 휘하 30여개 성의 정예 병력을 동원하여 899년 궁예를 공격한다. 그러나 양길의 군대는 비뇌성 아래에서 궁예의 역습을 받아 궤멸되고 만다.¹⁵⁾ 비뇌성 전투의 승리를 통해 궁예는 한반도 중부지역의 패권자로 등극하게 되었다. 또한 이 승리는 901년 궁예가 스스로 왕으로 칭하고 후고구려를 건국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비뇌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평군 하면 현리,¹⁶⁾ 경기도 광주와 안성 사이의 구간,¹⁷⁾ 철원군 김화읍,¹⁸⁾ 양평군 양평읍¹⁹⁾ 등으로 비정되기도 하였다.²⁰⁾ 하지만 최근의 연구 성과는 비뇌성의 위치가 현재 안성 죽주산성임을 논증한다.²¹⁾ 비뇌성의 위치 비정에 논거가 되는 자료는 『高麗史』 권 94 「지체문전」에 나오는 현종의 몽진 노정이다. 현종은 거란의 침입을 받아 나주로 몽진할 때 광주 → 비뇌역 → 양성(안성시 양성면) → 사산현(직산) → 천안부의 노정을 거치는데 광주와 양성 사이에 있는 비뇌역이 비뇌성의 위치를 비정하는데 중요한 논거 역할을 한다. 현종의 몽진 기사인 사료 A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뇌역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13) 『三國史記』 권 11 신라본기 11 진성왕 8년.

14) 『三國史記』 권 12 신라본기 12 효공왕 2년.

15) 『三國史記』 권 12 신라본기 12 효공왕 3년.

16) 복원문화역사연구소, 『건등산 뿌리의 후삼국지』, 2005, p.195.

17) 安永根, 「나팔려초 청주 세력의 동향」, 『수춘 박영석박사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상, 탐구당, 1992, pp.400~401.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譯註 三國史記』, 1997, p.382.

19) 李在範, 『後三國時代 弓裔政權 研究』, 혜안, 2007, p.71.

20) 기존의 언급된 비뇌성의 위치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도학의 논문에 자세히 언급되었다.(이도학, 「궁예의 복원경 점령과 그 의의」, 『東國史學』 34, 동국사학회, 2007, pp.196~198.)

21) 이도학, 위의 글, pp.194~202.

- A. 왕이 廣州를 출발하여 재를 넘어 비뇌역에 유숙하는데 지체문이 아뢰기를 “扈從하는 壯士가 모두 ‘妻子를 찾는다’고 稱托하고서 사방으로 흩어졌으니 昏夜에 적이 가만히 발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旗幟로 장사의 관에 꽂아서 변별하도록 하소서”하니 이를 따랐다. 유종이 말하기를 “신의 고향인 양성이 여기에서 멀지 아니하오니 청컨대 행차 하소서”하며 기뻐하여 드디어 양성으로 행차하였는데 ……²²⁾

이 몽진 기사에서 유종이 “신의 고향인 양성이 여기(비뇌역)에서 멀지 아니하오니 청컨대 행차하소서”하고 말하고 있다. 비뇌역에서 양성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면 비뇌역의 위치는 가평이나 양평이 아닌 현재 같은 행정구역(안성)으로 편재되어 있는 죽산(죽주) 일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비뇌성의 위치를 죽주산성으로 비정한 최근의 연구 성과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고려 건국 이후에도 죽주산성과 산성 바로 아래에 위치한 봉업사의 증축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죽주산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3. 죽주 비뇌성 전투와 戰場

궁예와 양길 군대가 충돌한 비뇌성 전투에 관한 기사는 삼국사기에 두 번에 걸쳐 나온다.

비뇌성 전투와 관련된 삼국사기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B-1. 3년(899) 가을 7월에 北原의 도적 우두머리 梁吉이, 궁예가 자기에게 탄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꺼리어 國原 등 10여 곳의 성주들과 함께 그를 칠 것을 모의하고 군사를 非惱城 아래로 진군시켰으나 양길의

22) 『高麗史』 권 94 열전 7 智蔡文, “王發廣州踰嶺宿鼻腦驛 蔡文奏 扈從將士皆托尋妻子四散 昏夜恐有賊竊發請爲幟插將士冠以辨 從之 宗曰 臣鄉陽城去此不遠請幸之.”

군사가 패하여 흩어져 달아났다.²³⁾

B-2. [건녕] 3년 병진(896)에 僧嶺縣과 臨江縣 두 고을을 공격하여 취하고 4년 정사(897)에 仁物縣이 투항하였다. 선종은 송악군이 한강 이북의 유명한 군으로서 산수가 기이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드디어 이곳을 도읍으로 삼고 孔巖과 黔浦, 穴口 등의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때 양길은 北原에 있으면서 國原 등 30여 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선종이 차지한 땅이 넓고 백성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30여 성의 강한 군사로써 습격하고자 하니 선종이 이를 미리 알아채고 먼저 공격하여 크게 승리하여 물리쳤다.²⁴⁾

궁예는 892년 양길에게 의탁한 후 894년 명주에 입성, 895년 3,5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명주에서 나온다. 이후 여러 군을 격파하며 승승장구 끝에 896년에는 철원에 도읍을 연다. 898년 7월에는 溟西道와 한산주 관내의 30여 성을 취하고 송악군에 도읍한다.²⁵⁾

사료 B-2를 살펴보면 양길이 궁예와 전쟁을 치르기 시작한 시기가 궁예가 송악에 도읍을 연 시기인 898년부터 입을 알 수 있다. 양길의 입장에서 궁예는 자신의 휘하에 있던 부하였다. 그런 궁예는 894년 명주 입성 후 스스로 장군이라 부르기 시작하며 양길을 배반할 기색을 보인다.²⁶⁾ 결국, 궁예가 898년 송악에 도읍을 열자 양길과 궁예사이에는 더 이상 같은 지역에서 공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사료 B-2에서 알 수 있듯이 양길은 궁예가 송악에 도읍을 열자 궁예와의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양길이 궁예와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는 한강 하류 일원을 장악한 궁예를

23) 『三國史記』 권 12 신라본기 효공왕 3년, “三年 秋七月 北原賊帥梁吉 忌弓裔貳己 與國原等十餘城主 謀攻之 進軍於非惱城下 梁吉兵潰走.”

24) 『三國史記』 권 50 열전 10 궁예, “三年丙辰 攻取僧嶺·臨江兩縣 四年丁巳 仁物縣降 善宗謂 松岳郡漢北名郡 山水奇秀 遂定以爲都 擊破孔巖·黔浦·穴口等城 時梁吉猶在北原 取國原等三十餘城有之 聞善宗地廣民衆 大怒 欲以三十餘城勁兵襲之 善宗潛認 先擊大敗之.”

25) 『三國史記』 권 12 신라본기 12 효공왕 2년.

26) 『三國史記』 권 11 신라본기 11 진성왕 8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중심부를 관통하는 한강이라는 내륙 수로를 온전하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²⁷⁾

898년부터 시작된 궁예와 양길의 전쟁은 사료 B-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899년 비뇌성 전투에서 궁예의 대승으로 막을 내린다. 현재의 죽주산성으로 추정되는 비뇌성은 궁예가 호족들의 각축장에 처음 투신하고자 竹州賊魁라 불렸던 箕萱에게 투탁하였을 때 기훤세력의 근거지로 활용되었던 지역이다. 궁예가 기훤의 부하가 되었을 때는 진성여왕 5년인 891년이므로²⁸⁾ 비뇌성 전투가 벌어졌던 899년 당시 죽주산성이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는지는 사료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하지만 사료 B-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양길이 궁예를 치기 위해 國原을 비롯하여 10곳의 성주들과 힘을 합해 진군한 곳이 비뇌성임을 고려한다면 비뇌성 전투가 벌어진 899년경에는 적어도 죽주산성을 비롯한 죽주 일원은 궁예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죽주산성이 궁예의 군대에 의해 선점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죽주의 토착세력이 친궁예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비뇌성 전투 시 궁예 병력의 주력 중 하나는 패서지역의 군진세력이었다. 당시 패서지역의 유력한 호족인 평산박씨의 경우 본 논문의 4장에서 상술하겠지만 죽주지역의 토착세력이 된 박적오의 후손 중 일부가 평주로 이주하여 패서지역의 유력한 호족이 된 것이다. 즉, 비뇌성 전투 당시 죽주지역은 궁예 병력의 주력인 패서호족과 혈연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세력이 재지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898년부터 시작된 궁예와 양길의 전쟁은 899년경 궁예가 죽주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하자 양길이 자신의 총력을 모아 사활을 건 전면전을 벌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마도 궁예의 지휘 아래 궁예군이 양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비뇌성을 빼앗자 양길은 이에 대항하고 비뇌성에 주둔해 있는 궁예를 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 것으로

27) 이도학, 「궁예의 복원정 집력과 그 의의」, 『東國史學』 34, 동국사학회, 2007, p.194.

28) 『三國史記』 권 50 열전 10 궁예.

보인다. 위 두 기사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B-2의 기록을 보았을 때 양길은 궁예를 공격하기 위해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길이 머물고 있던 北原지역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하에 있던 國原 병력을 비롯하여 30여 성의 강한 군사로써 궁예를 공격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양길 세력은 궁예 세력보다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후백제 甄萱이 양길에게 자신의 前職인 裨將직을 내려주었던 점을 통해 알 수 있다.²⁹⁾ 甄萱이 양길에게 비장직을 제수한 이유는 그만큼 양길세력이 강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甄萱은 이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여타 호족들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견훤이 양길세력과 제휴했다는 점이다.³⁰⁾

甄萱과 전략적 제휴까지 하고 있던 양길세력은 궁예를 물리치기 위해 선제공격을 가한다. 그러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양길 군대는 비뇌성 아래까지 진격하였으나 궁예의 기습 공격을 받고 괴멸되고 만다. 이를 통해 비뇌성 전투는 공성전이 아니라 성 밖에서 벌어진 전투임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전력에서 밀리고 있었던 궁예가 공성전이 아닌 야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형지세를 잘 이용하였고 토착세력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궁예는 891년 세달사를 나와 죽주의 기훤에게 투탁한다. 궁예는 죽주에서 약 1년 정도 머무르면서 기훤의 휘하에 있던 원희, 신훤 등과 결합한다.³¹⁾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훤은 궁예를 앞두고 예로서 대접하지 않았는데 이는 궁예를 자신의 휘하에 두지 않고 외곽 방어 등의 한직에 두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궁예는 죽주에 머무는 동안 기훤의 핵심세력으로는 활동하지 못했지만 이 지역의 지형지세는 완벽하게 익힐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궁예가 공성전을 택하지 않고 비뇌성인 죽주산성에서

29) 『三國史記』 권 50 열전 甄萱.

30) 이도학, 「궁예의 복원경 점력과 그 의의」, 『東國史學』 34, 동국사학회, 2007, p.207.

31) 『三國史記』 권 50 열전 10 궁예.

나와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양길군대를 기습공격하여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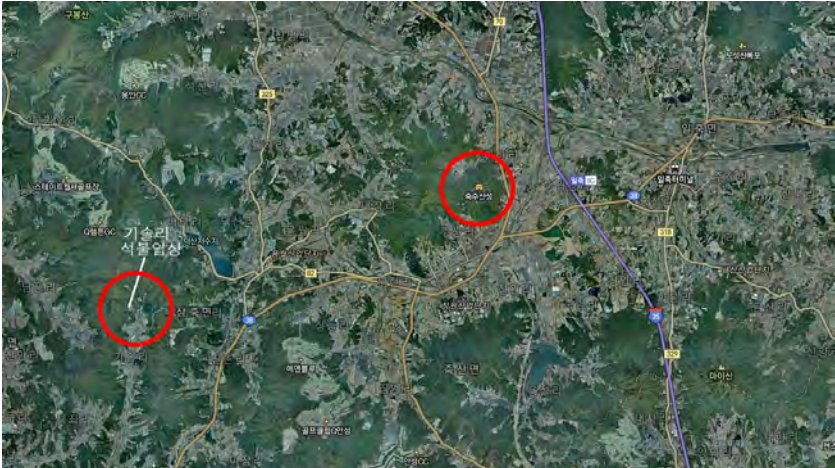
죽주산성은 죽산 분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산성은 죽산의 진산인 비봉산(해발 372m)에서 동남쪽 약 1km 지점에 있는 해발 229m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축조된 혼합식 산성이다. 비봉산 정상부와 죽주산성 사이는 마안형의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죽주산성 동쪽, 북쪽, 남쪽은 청미천과 죽산천에 의하여 형성된 평야지대가 감싸고 있다. 따라서 죽주산성에서 시계는 서쪽은 비봉산에 막혀서 제한되어 있지만 나머지 방향으로의 원거리까지 아주 우수하다. 특히 동쪽으로는 장호원까지 평야와 낮은 구릉으로 탁 트여져 있어서 시계가 가장 좋다.³²⁾ 즉, 양길의 입장에서 청미천이 자연 해자 역할을 하는 죽주산성 북쪽이나, 산성에서 병력의 정탐이 용이한 평지지역인 동쪽과 남쪽 지역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양길의 군대는 비뇌성(죽주산성)에 주둔하고 있는 궁예군을 공격하고자 사료 B-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뇌성으로 진군한다. 양길 군대의 작전은 사료 B-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강한 군대를 이용한 기습공격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즉, 양길군은 비뇌성에 주둔해 있는 궁예 군대가 장기적인 농성전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없도록 비뇌성을 급습할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비뇌성을 급습하기 위해서는 양길군대의 집결지가 비뇌성에서 정탐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야만 한다. 비뇌성(죽주산성)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쪽과 동쪽, 남쪽이 모두 전망이 좋은 곳이다. 지형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비뇌성을 급습하고자 하는 군단의 배후 집결지로 가장 적당한 곳은 “궁예미륵”이라는 전설을 갖고 있는 석불이 위치한 현재의 기술리 쌍미륵사 일대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양길의 군대가 30여 명의 병력을 모은 것으로 보았을 때 최종 집결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899년 비뇌성 전투에서 궁예가

32)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안성 죽주산성 지표 및 발굴조사 보고서』, 2002, p.28.

사진 1. 죽주산성, 기솔리 일대 지도(Daum 위성지도 전재)



양길에게 크게 승리한 후 이듬해 평정한 지역이 광주·충주·청주·당성·괴양 등이기 때문이다.³³⁾ 이 지역들은 양길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지역이며 죽주산성을 중심으로 환호형으로 배치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군대가 동원되었다면 그 집결지는 죽주산성의 지정학적 위치상 죽주산성의 서쪽지역이 될 확률이 높다.

죽주산성의 서쪽지역인 기솔리 쌍미루사 일대의 지역은 양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규모 병력을 은거시킬 만한 곳이다. 쌍미루사 서쪽에는 해발 300m 내외의 국사봉 지맥이 남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쌍미루사 앞산에 해당되는 동쪽에는 해발 250m 내외의 낮은 산맥이 역시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즉, 쌍미루사는 국사봉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두 개의 큰 지맥 사이에 위치해 있는 셈이다.(사진 1)

이곳은 죽주산성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죽주산성을 공격하고자 하는 군단의 배후 집결지로 이용하기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만약 양길이 이곳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켰다면 국사봉에서 흘러내린 동

33) 『三國史記』 권 50 열전 10 궁예.

쪽 지맥을 자연 방어막으로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죽주산성에서 보았을 때 서쪽 지역은 비봉산에 막혀 동향파악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면, 산성의 서쪽 방향으로부터 산성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는 방법은 지형을 고려한 전술적 선택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궁예미륵”이라 일컬어지는 기술리 석불입상이 위치한 쌍미륵사 일대는 양길군대가 궁예군을 공격하기 위해 주둔한 배후기지일 가능성이 있다.

비뇌성 전투는 사료 B-1·2에서 알 수 있듯이 공성전이 아니라 궁예군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투이다. 사료 B-2에 의하면 양길은 비뇌성에 주둔한 궁예군을 30여 성의 강한 군사로써 습격하고자 했다. 양길의 군대는 비뇌성을 공격하기 전 궁예군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전열을 정비하고자 국사봉 지맥이 성벽역할을 하는 현재의 기술리 일대에 병력을 집결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죽주지역 일대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궁예는 사료 B-2에서 알 수 있듯이 양길의 공격을 알아채고 먼저 기습 공격하여 대승을 거둔 것이다. 즉, 비뇌성 전투의 양상은 궁예의 기습공격에 의한 대승이며 전장은 현재의 기술리 쌍미륵사 일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토착 세력의 동향

비뇌성 전투는 그 지역의 지형지세를 손바닥 보듯이 파악하고 있는 궁예 측이 이미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싸움이었다. 이와 더불어 토착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는 궁예가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토착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죽주 지역의 대표적인 토착 세력인 박적오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적오에 대한 논의는 주로 아래의 사료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1. 그 선대는 북경도위 赤烏로 신라로부터 죽주에 들어가 察山侯가 되었고

또 平州로 들어가 십곡성 등 13개 성을 설치하여 궁예에게 귀부하였다. 그 후 자손이 번창하여 우리 태조가 통합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繼嗣가 끊기지 않았다.³⁴⁾

C-2. 박씨의 선조는 계림인으로 대개 신라 시조 혁거세의 후예이다. 신라 말 그 후손 察山侯 積古의 아들 直胤은 대모달로 平州의 관내 八心戶에 徙居하여 읍장이 된 까닭에 직胤으로부터 그 후손은 평주인이 되었다.³⁵⁾

C-1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적오는 경주에서 지방관으로 나갔다가 임지에 정착하였던 인물이다. 赤烏는 북경도위를 역임하였는데 北京은 무열왕 5년(658)까지 北小京으로 불리기도 하였었던 溟洲로 알려지고 있다.³⁶⁾

명주에서 죽주로 온 박적오는 죽주에서 察山侯가 되었다. 죽주는 본래 고구려의 皆次山郡으로 불렸다가 신라 경덕왕 때 介山郡으로 바뀐 곳이다.³⁷⁾ 察山은 竹州의 옛 명칭인 皆次山을 지칭한 것으로 보여진다.³⁸⁾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적오가 察山侯로 불렸다는 점이다. 察山侯는 介山군의 태수를 지칭한 것이다.³⁹⁾

介山이라는 지명은 이곳이 고려 태조 23년(940) 竹州로 승격⁴⁰⁾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이 지역사람들에게 통용되었으며 죽주로 지역명이 개명된 뒤에도 한동안 병행되어 사용되었다. 이는 망이산성에서 발굴된 명문기와의를 통해 알 수 있다. 기와의 등면에는 “□□ 峻豐四年(고려 광종 14년, 963년) 壬

34) 김용선 편, 『朴景仁墓誌銘』,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 아세아문화연구소, 1993, “其先北京都尉赤烏 自新羅入竹州 爲察山侯 又入平州 置十谷城等十三城 歸于弓裔主 厥後子孫蕃昌 自我太祖統合時 至于今 不絶繼嗣.”

35) 김용선 편, 『朴景仁墓誌銘』,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 아세아문화연구소, 1993, “朴氏之先 雞林人也 蓋新羅始祖赫居世之裔也 新羅之季 其孫察山侯積古之子 直胤大毛達徙居 平州 管八心戶爲邑長 故自直胤而下爲平州人.”

36)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의 形成과 變化에 대한 一考察-平山朴氏의 一家門의 實例 檢討-」, 『歷史學報』 제118집, 1998, p.4.

37) 『三國史記』 권 35 잡지 4 지리 2.

38) 李樹健, 「高麗前期 地方勢力과 土姓」,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p.156.

39) 鄭淸柱, 위의 글, p.5.

40) 『大東地志』 권 4 죽산 연혁.

戊大介山 竹州⁴¹⁾라는 명문이 적혀 있는데 이 명문을 통해 고려 초까지 介山이라는 지역명이 竹州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박적오는 개산군의 태수를 지칭하면서 개산군의 고구려 때 지명을 이용한 察山侯라는 명칭을 사용했을까? 박적오가 죽주에 온 시기는 경덕왕 때로 추정⁴²⁾되기도 하며 근래에 제시된 더 설득력 있는 연구 성과에 의하면 9세기 초·중반 이후로 여겨지기도 한다.⁴³⁾ 경덕왕때로 추정하였을 경우 이 시기는 경덕왕 때 시행된 지명의 漢式化가 시행되는 시점이기에 그동안 익숙하게 사용되어 왔을 皆次山이라는 지명을 이용하여 察山侯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신라 중앙정부에서 임명되어 온 지방의 태수라면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따라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太守의 다른 명칭이었을 '侯' 앞에 고구려 옛 지명인 察山(皆次山)을 사용하고 있다.

박적오가 죽주에 온 시기를 9세기 초·중반 이후로 상정하였을 경우 역시 그가 지방관으로 죽주에 온 것임을 고려하고 고구려의 지명이 신라에 의해 개명되고 많은 시기가 지났음을 고려할 때 박적오가 고구려 옛 지명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이 생긴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이유는 아마도 박적오가 고구려 國系의식을 표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적오는 위의 사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라인의 후손으로 고구려 유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구려 國系의식을 표방해야 했던 이유는 그의 아들 박직윤에서 찾을 수 있다. 사료 C-2에 의하면 박직윤은 패강진이 위치한 평주의 읍장이 된다. 그런데 그의 관직명은 大毛達로 칭해지고 있다. 대모달이란 고구려의 무관직이다. 박직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패강진은 신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9~10세기 초까지 고구려

41)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안성 망이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1999, pp. 147~148.

42)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의 形成과 變化에 대한 一考察-平山朴氏의 一家門의 實例 檢討-」, 『歷史學報』 제118집, 역사학회, 1998, p.6.

43) 이재범, 「신라말·고려초 안성지역의 호족과 칠장사」, 『안성 칠장사와 혜소국사 정현』, 사회평론, 2011, p.27.

의 관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패강진 지역에 고구려유민의 전통적 國系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신라의 중앙정부조차 통어할 수 없는 지방세력이 형성되었음을 실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⁴⁴⁾ 즉, 박직윤은 평주를 비롯한 溟西지역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 그 지역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고구려 계승의식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사료 C-1을 보면 죽주에서 평주로 들어간 이는 박적오이며 사료 C-2에서는 평주에 들어간 이가 적오의 아들 박직윤으로 되어 있다. 박직윤이 평주로 이주하자마자 바로 '대모달'을 칭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박직윤이 평주로 이주하여 '大毛達'이라 칭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적오 때부터 패서지역의 호족들과 박적오 사이에 이미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적오가 고구려계승의식이 강한 패서지역의 호족들과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적오 역시 그들과 같은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박적오는 고구려 때 지명을 이용한 察山侯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朴赤烏가 패서호족과 공유할 수 있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朴赤烏의 이름을 풀이하면 붉은 까마귀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까마귀, 그중에서 삼족오는 동방 고대의 조류송배사상에서 발로한 것으로⁴⁵⁾ 고구려에서는 고분벽화나 금관장식 등에서 발견되는 神鳥이다. 붉은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짐의 崔豹가 지은 『古今注』에서 살필 수 있다.

- D. 赤烏라는 새는 위(북방)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 사는데 태양 속에 사는 세 발 달린 三足鳥의 精이 아래로 내려와 三足鳥를 낳았다.⁴⁶⁾

44) 崔根泳, 『統一新羅時代의 地方勢力研究』, 신서원, 1990, p.97.

45) 李亨求, 「고구려의 삼족오 신앙에 대하여-고고학적 측면에서 본 鳥類송배사상의 기원 문제-」, 『東方學志』 8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4, p.28.

46) 『古今注』, “所謂 赤烏者 降而也 其所居高處 日中三足鳥之精 降而生三足鳥”(김주미, 「三足鳥·朱雀·鳳凰 圖像의 성립과 친연성 고찰」, 『역사민속학』 제31호, 한국역사민속학

여기서 '赤鳥'는 동북아시아에 분포해 있던 玄鳥인 까마귀를 神鳥로 여겼던 동이족의 일파가 중국 서북부에서 동남부의 산둥반도 지역으로 南下한 것을 의미한다. '赤鳥'의 赤色을 五行사상과 결부시켜 보면 南方에 해당하는 색이므로 이는 동이족의 남하에 따라 三足鳥의 형상도 까마귀와 같은 玄鳥에서 赤鳥의 단계를 거쳐 붉은 색의 朱雀으로 변이되었음을 시사한다.⁴⁷⁾

朴赤鳥는 박혁거세의 후손으로 신라인이다. 그의 원래 이름은 赤鳥가 아닌 D.에서 보이는 積古일지도 모른다. 이런 그가 패서지역 호족과 國系の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스스로를 남쪽(신라)으로 내려온 (고구려의) 玄鳥, 즉 赤鳥라고 주장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물론 이름만을 갖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주장하는 것은 억측일 수 있다. 하지만 박적오가 고구려 지명을 이용한 察山侯라는 직명을 갖고 있으며 그의 아들이 통일신라시기에 고구려 무관직인 大毛達이라 칭하였고, 그의 후손들이 고구려를 계승한 후고구려(태봉), 고려 등에서 번창하고 있는 점에서 朴赤鳥라는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의 상징성은 한번 짚고 고려해 볼만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죽주지역의 토착세력이 된 박적오의 후손 중 일부는 평주로 이주하여 평산박씨의 시조가 되며 패서지역의 유력한 호족이 되었다. 죽주지역에서는 박적오계의 후손들이 죽산박씨를 이루어 살았다. 이들은 고려조에 들어와 삼중대광까지 오른 박기오를 배출할 정도로 유력한 호족세력을 이루었다.⁴⁸⁾

평산박씨 가계에서 궁예에게 귀부한 인물은 박적윤의 아들인 朴遲胤이었다. 그는 895 패서지방이 호족들이 궁예에게 귀부할 때 궁예세력에 편제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궁예가 패서지역을 장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회, 2009, p.265, 재인용)

47) 김주미, 「三足鳥·朱雀·鳳凰 圖像의 성립과 친연성 고찰」, 『역사민속학』 제31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9, p.266.

48) 정성권, 「안성 매산리 석불입상연구-고려 광종대 조성설을 제기하며-」, 『文化史學』 17, 한국문화사학회, 2002, pp.299~300.

것으로 생각된다.⁴⁹⁾ 평산박씨 세력은 패강진이 설치된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호족들이며 왕건의 아버지인 송악의 왕릉보다 먼저 자발적으로 궁예에게 귀부하였다. 이들은 본래 군진세력으로서 궁예군의 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비뇌성 전투에도 참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비뇌성 전투에 참가할 당시는 박적오계의 후손들이 평산과 죽주로 분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다. 그렇다면 죽주지역의 토착세력은 패서 지역의 평산박씨들과 혈연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죽주지역의 토착세력들은 한때 기훤이나 양길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어느 지역의 토착세력보다 더 적극적으로 궁예를 지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형지세를 완전히 익히고 있으면서 토착세력의 적극적인 지지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곳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승패는 이미 판가름 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궁예는 양길의 대군을 상대로 기습적인 선제공격을 통해 대응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비뇌성 전투의 승리는 궁예에게 적대적이었던 충주, 靑州(괴산군 청천) 등을 비롯하여 괴양의 우두머리 청길과 신훤 등이 성을 들어서 궁예에게 투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⁵⁰⁾ 즉, 비뇌성 전투의 승리는 궁예에게 있어 중부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5. 궁예 관련 유적

본고는 비뇌성 전투가 벌어진 전장을 죽주산성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기술리 일대로 추정하였다. 비뇌성에 대한 다양한 기존의 의견 중 죽주

49)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의 形成과 變化에 대한 一考察-平山朴氏의 一家門의 實例 檢討-」, 『歷史學報』 제118집, 역사학회, 1998, p.12.

50) 『三國史記』 권 50 열전 10 궁예.

산성을 비너성으로 비정한 의견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한 이유는 앞장에서 언급한 지정학적 이유와 죽주지역의 사회적 배경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상 다른 지역은 논의하지 못했지만 비너성으로 비정되는 여러 장소의 지정학적, 사회적 환경 중 죽주산성 일대의 환경이 궁예가 전세의 분리함을 극복하고 기습공격을 통해 양길의 대군을 꺾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추정되었다.

이밖에 기슬리 일대가 비너성 전투의 전장일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 궁예 관련 유적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슬리에는 “궁예미륵”으로 불리는 석불이 기슬리 쌍미륵사와 기슬리 국사암에 위치해 있다. 이 석불들이 주목되는 이유는 궁예 관련 구비전승의 사실성 때문이다.

궁예관련 설화의 사실성은 국문학이나 민속학뿐만 아니라 역사학, 고고학⁵¹⁾ 분야에서도 그 사실성이 매우 높음이 인정되고 있다. 국문학·민속학 분야에서는 궁예 관련 구비전승의 사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근래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궁예 관련 전설은 자연물(산, 고개, 바위 등)과 인공물(유적지, 유물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철원 인근에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되었고 史實性에 충실한 唯一한 전설이다. 그리고 그 증거물 수효로 보았을 때 하나의 전설에 연하여 나타난 連鎖證示傳說로서의 면모를 보이는데 이는 사실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⁵²⁾

역사학 분야에서는 설화나 전설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나 근래의 역사학 논문에서는 궁예 설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논문에 의하면 궁예 전설의 특성은 집중성, 구체성, 통일성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궁예 설화의 특징은 궁예의 성장기에서부터 태봉의 멸망까지 지역적으로 중복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51) 백중오, 「포천 성동리산성의 변천과정 검토」, 『先史와 古代』 20, 한국고대학회, 2004, p.298.

52) 유인순,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인문과학연구』 1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p.104;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궁예의 나라 태봉』, 일조각, 2008, p.219

사진 2. 안성 기술리 석불입상 전경 사진 3. 포천 구읍리 석불입상 전경



궁예 설화는 재단사에 의하여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지역과 시기에 따라 전승되어 온 이야기가 중복되지 않으며, 성장기의 안성, 전성기의 철원과 같이 설화가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겹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궁예와 관련된 설화는 일정한 역사적 진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³⁾

“궁예미륵”으로 언급되는 석불들이 고려대상이 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궁예미륵”으로 전칭되는 석불들의 희소성을 들 수 있다. 궁예의 활동지역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의 경기·충청·강원도 지역을 포함한 중부 지역 전체와 나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이다. 이렇듯 궁예는 후삼국시대 최대의 강역을 확보하였으며 비교적 오랜 기간 머문 곳도 여러 곳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예가 비교적 오랜 기간 머물렀던 원주나 명주지역뿐만 아니라 철원 일대에서도 “궁예미륵”으로 전칭되는 불상은 찾아볼 수 없다.

“궁예미륵”으로 전칭되는 석불은 현재 안성 기술리에 두 곳, 포천 구읍리에 두 곳의 장소에 세워져 있다. 안성 기술리에 세워진 “궁예미륵” 석불 중 나말려초기의 조각적 특징이 남아 있는 석불은 안성 기술리 석불입상(사진 2)이며 국사암 석조삼존불입상(사진 4)의 경우 여말선초에 조성된 석불로 볼 수 있다.

53) 이계범, 「철원 지역의 궁예 전승과 고려 재건에 대한 평가」, 『高麗 建國期 社會動向 研究』, 京仁文化社, 2010, p.175.

사진 4. 안성 국사암 석조삼존불입상



사진 5. 포천 구읍리 석조보살입상



포천 구읍리에는 구읍리 석불입상(사진 3)과 구읍리 석조보살입상(사진 5)이 궁예미륵으로 불리고 있다. 이 중 구읍리 석불입상이 나말려초기의 조각적 특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구읍리 석조보살입상이 경우 11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궁예 관련 구비전승은 비교적 많은 연구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궁예미륵”이라 전칭되는 석불에 대해서는 주목된 바가 없다. 그 이유는 궁예의 활동기와 관련이 없는 안성 국사암 석조삼존불입상과 포천 구읍리 석조보살입상이 “궁예미륵” 석불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이 석불들은 학술논문에도 궁예와 관련이 없는 후대의 상들로 소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⁵⁴⁾

안성과 포천에 위치한 “궁예미륵”으로 불리는 석불들 중 만들어질 당시부터 “궁예미륵”으로 불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나말려초기 조각적 특징이 남아 있는 안성 기술리 석불입상과 포천 구읍리 석불입상만이라 할 수 있다. 후대에 조성된 국사암 석조삼존불입상과 포천 구읍리 석조보살입상의 경우 처음 조성될 당시에는 “궁예미륵”이라 불리지 않았을 것이다. “궁예미륵”이라 불리는 기술리 석불입상과 구읍리 석불입상이 만들어진 후 국사암 석조삼존불입상과 구읍리 석조보살입상이 인근에 만들어졌고,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이웃한 석불들이 “궁예미륵”이라 전칭되는 상황 속에서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 “궁예미륵”에 관한 내용이 와전되어 각각의

54) 최성은, 2008, 「태봉 지역 불교미술에 대한 試考」, 『궁예의 나라 태봉』, 일조각, p.204.

지역에 있는 두 곳의 석불들 모두 “궁예미륵”이라 칭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래 “궁예미륵”으로 전칭되었던 석불은 안성 기술리 석불입상과 포천 구읍리 석불입상이라 할 수 있다.⁵⁵⁾

궁예관련 설화의 특징은 궁예 정권기 벌어진 역사적 사건이 구비전승에 매우 사실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성을 고려하였을 때 “궁예미륵”으로 불리는 안성 기술리 석불입상과 포천 구읍리 석불입상은 궁예 정권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궁예미륵”으로 불리는 안성 기술리 석불입상의 경우 석불의 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성과 인근의 이천지역에 조성된 대부분의 石柱形 석불들의 경우 석불 제작의 효율성을 위해 석불의 몸통을 분리된 석재를 이용해 조립하여 만든다.⁵⁶⁾ 이에 반해 땅 밑에 묻힌 부분까지 고려하면 6m가 넘는 크기의 기술리 석불입상은 석재를 분리시키지 않고 불상을 만들었다. 6m가 넘는 크기의 석불을 제작하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2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⁵⁷⁾

안성 기술리 석불입상이 위치한 지역은 주요한 교통로가 지나는 곳도 아니며 국사봉에서 흘러내린 지맥이 동·서를 막아서 있는 곳이다. 또한 사람도 많이 살고 있지 않는 궁벽한 곳이다. 이런 곳에 지상에 노출된 높이만 5m가 넘는 거대한 석상이 200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되어 2개나 세워진 이유는 이 장소가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별한 역사적 의미는 기술리 석불입상이 “궁예미륵”으로 불리고 있는 점에서 궁예 정권기 벌어진 역사적 사건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5) 정성권, 「“궁예미륵” 석불입상의 구비전승적 연구 - 안성 기술리 석불입상, 포천 구읍리 석불입상을 중심으로-」, 『民俗學研究』 30호, 국립민속박물관, 2012. (간행예정)

56) 이천 여석리 석불입상, 이천 갈산동 석불입상, 이천 자석리 석불입상 등이다.

57) 화강암 1㎡의 무게는 약 2.75톤이다. 기술리 우측 석불의 경우 석불 전면의 폭이 약 1.2m이다. 이 석불을 만들기 위해 폭 1.2m 높이 6m의 직육면체를 옮겼다면 석불을 다듬기 전 원석의 무게는 약 23톤이다. 모서리 부분을 쳐내고 옮겼다 하더라도 석불을 만들기 위한 원석의 무게는 20톤 정도이다. 1톤의 석재를 옮기는데 필요한 인력이 약 10명 정도로 추산되므로 기술리 우측 석불을 만들기 위해 석재를 옮기는데 동원된 인력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 200명 정도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궁예미륵” 석불 자체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안성 기슬리 석불입상이 사실성이 높은 궁예관련 구비전승이 전해지는 “궁예미륵”이라는 점, 본고에서 지정학적 분석을 통해 비뇌성 전투의 전장지로 추정한 곳과 “궁예미륵”으로 불리는 석불입상이 존재하는 곳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단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것이라는 수준의 문제제기만을 하며 논의를 마칠까 한다.

6. 결 론

본고는 중부지역의 패권을 놓고 벌인 궁예와 양길의 전쟁, 비뇌성 전투에 관해 살펴본 논고이다. 궁예는 892년 죽주의 기회를 떠나 양길에게 투탁한 후 자신의 세력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하였다. 명주입성 후에는 더욱 승승장구하여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궁예의 성장은 결국 양길의 견제를 받게 되며 궁예와 양길은 피할 수 없는 자웅을 겨루게 된다. 결국 최후의 승부를 보아야 하는 양자의 대결은 비뇌성에서 마지막 대결을 벌이게 된다.

궁예와 양길의 운명이 갈린 비뇌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최근의 연구성과는 비뇌성의 위치가 안성 죽주산성임을 밝히고 있다. 2장에서는 안성 죽주산성이 비뇌성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고려사』 「지체문전」을 인용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았다.

궁예와 양길 세력의 최후의 대결인 비뇌성 전투는 『삼국사기』 기사에 의하면 비뇌성을 놓고 벌인 공성전이 아니라 비뇌성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임을 알 수 있다. 이 전투는 궁예군이 양길군을 기습공격하여 대승을 거둔 것으로 3장에서는 비뇌성 전투의 戰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비뇌성 전투의 전장은 이 전투가 기습공격을 고려했을 때 비뇌성으로 비정되는 죽주산성의 서쪽지역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임을 상정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죽주산성의 지정학적 위치상 동쪽과 남쪽, 북쪽 일대는 평지로서 기습공격을 감행하기 어려운 지형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비뇌성 전투에 임한 양길군의 경우 北原과 國原 등 30여 성의 군사를 모은 대규모 군대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은 비뇌성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전 배후 집결지에 집결한 후 죽주산성을 공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양길군의 배후 집결지로 현재의 안성 기슬리 쌍미륵사 일대를 상정하였다.

비뇌성 전투에서 궁예군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죽주지역 일대의 지리를 궁예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궁예가 죽주지역 일대의 지리를 매우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처음 호족들의 세상에 투탁한 지역이 죽주였기 때문이다. 이밖에 궁예가 30여 성의 대군으로 구성된 양길군을 기습공격으로 격파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로는 죽주지역 토착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들 수 있다. 궁예군의 일부는 패서지역 호족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죽산 박씨에서 분화된 평산 박씨가 주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궁예군의 중추세력과 죽산지역의 토착민이 혈연적으로 연결된 관계였음을 고찰해 보았다.

5장에서는 비뇌성 전투의 전장으로 추정된 지역에 세워져 있는 석불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이 석불들은 “궁예미륵”으로 불리고 있으며, 궁예관련 설화의 사실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궁예미륵”으로 불리는 석불입상 중 안성 기슬리 석불입상의 경우 궁예 정권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밖에 “궁예미륵”으로 구비전승되는 석불이 비뇌성 전투의 전장으로 추정된 지역과 같은 지역에 세워져 있다는 점은 단지 우연의 일치만이 아니면 미술사와 고대사간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하였다.

(원고투고일 : 2012. 3. 30, 심사수정일 : 2012. 5. 15, 게재확정일 : 2012. 5. 18)

주제어 : 궁예, 양길, 비뇌성, 죽주산성, 기슬리 석불입상, 궁예미륵, 박적오

<ABSTRACT>

A study on the Benae Fortress(非惱城) Battle
- A War between Gungye(弓裔) and Yanggil(梁吉) -

Jeong, Seong-kwon

This paper investigates a war between Gungye and Yanggil. They were powerful clans at the end of the Unified Silla period.

When Gungye was born into a royal family but due to the power struggle, he almost died. He spent his childhood in the Temple. When he grew up, he went to Gihwon who was one of the powerful clans at the Jukju area. Although Gungye joined with his supporters to Gihwon, he didn't treated them well. Gungye let down and a year later he left Gihwon and went a powerful Yanggil clan in Wonju. From this point, Gungye marched on carrying everything before them. Yanggil became a strong supporter.

In 895, Gungye entered Myoungju with 600 soldiers. A year later he left Myoungju with 3,500 soldiers. In Myoungju he called himself a general. From this time, Gungye and Yanggil got into trouble.

After Gungye left Myoungju, his group became bigger. At last Yanggil began to attack Gungye from 898. Finally, in 890 Gungye and Yanggil armies were ready to fight a decisive battle. This battle was fought at the Benae fortress.

Until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opinions about the location of the Benae fortress. Recent research shows that the Benae fortress is Jukju mountain fortress.

This paper proves the specific location of the Benae fortress battle field. According to the historical record, the Benae fortress battle was fought outside of the Benae fortress. This paper explains that the battle field is Gisolri that is 8km west of the Benae fortress.

This paper also finds that the natives strongly supported the Gungye army. The natives of Jukju had strong relationship with Gungye army. This paper shows that some of the Gungye army Grandfather's hometown was Jukju. This kind of blood relationship really worked when Gungye army fought with Yanggil army.

Not only these kind of reason but also cultural assets show that Gisolri was the Benae fortress battle field. In Gisolri there is a stone Buddha statue. This stone Buddha statue is related to a folktale about Gungye. Many scholars agree that the folktales about Gungye reflect the historical facts.

This paper presumes that Gisolri stone Buddha statue was built in commemoration of Gungye's victory in the Benae fortress battle. After the Benae fortress battle, Gungye could control the central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 Gungye(弓裔), Yanggil(梁吉), The Benae fortress, Maitreya, folktale, a Gisolri stone Buddha statue, powerful clan